

# 안동과학대 제9대 권상용 총장 취임식



▲안동과학대 권상용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안동시 안동과학대 평생교육관 3층 세미나실에서 권정달(대총원 총재·학교법인 장준학원이사), 권영세 안동시장, 정현진 안동대총장, 조재연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이윤철 안동문화방송국 사장, 권재주·인찬 장준학원이사, 권태환 장준학원 법

인감사, 안동 각기관장,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안동대평의원, 동창회원, 그리고 친·인척, 선후배 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과학대 제9대 권상용 총장 취임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김선희 입학교무처장의 사회로 내빈소개, 총장 약력소개, 법

인사사의 환영사, 총장 취임사, 내빈 축사가 있었다.

권상용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저는 오늘 총장 취임이라는 개인적인 기쁨과 영광에 앞서 우리 대학이 쌓아왔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나아가 대외적으로 우리 대학이 명실상부한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새삼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를 위하여 안동과학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안동과학대학의 역사와 전통을 지키고 계승하며 변화와 혁신을 통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취업 중심 명문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권상용 총장(44세)는 영남대 이과대학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화학과 유기화학·이화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영남대 일반대학원 임강사, 안동과학대 조교수, 국제과제연구원 소장, 同 부교수, 부총장을 거쳐 금남 총장으로 취임하였다.

(권혁세 기자)

# 譯抄 陵洞實記

역초 능동실기

## 崇報堂重新記

(지난호 이어)

덕이 두텁고 빛이 흘러 자손중(子孫中)에 본도감사(本道監司)와 본부부사(本府府使)된 자가 전후를 서로 이어 묘전(廟前)에 숭보당(崇報堂) 십여간(十餘間)을 지었으니 제도(制度)가 자못 넓고 커서 제향(祭享) 때의 재숙(齋宿·근신하여 숙박함)과 임원(任員)의 기거(起居)하는 곳으로 삼았더니, 이때에 역시 불타고 말았다.

이에 우리 종중(宗中)인 권익(權益)과 권운태(權運泰) 두 사람을 중건도감(重建都監)으로 정하여 돈을 거두고 물자를 모아 착공하니 모두 권문(權門)이 책임을 진 것이다. 먼저 신문(神門)을 짓고 제포(祭袍)와 전곡청(典穀廳)과 주고(廚庫)와 잡사(雜舍)를 차례로 세운 후에 또 재목(材木)을 배어 숭보당 공사를 시작할제, 익은 상고(喪故)를 당하여 떠나가게 되었다.

예로부터 묘(廟)의 임무는 우리 권문이 전관(專管)하였으니, 도유사(都府司)라 하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알지 못하나, 이때에 마침 가제(家弟) 두위(斗緯)가 그 소임(所任)에 당하여 공론(公論)을 채택하여 옛 규정을 개혁하고 향당(鄉黨)에 위촉하여 향원(鄉員) 중 덕망이 있는 자를 추천하니 안상사(安上舍) 노석(老石)이 도유사가 되었다.

상사(上舍)가 일을 맡은 뒤에 세밀히 경리(經理)하고 민활(敏活)하게 추진하여 운태(運泰)와 더불어 당(堂)과 재실(齋室)의 공사를 감독하니 1년 만에 낙성(落成)하여 좌우에 재실을 만들고 중간을 대청마루로 하니 홍랑(虹梁)은 나는 화살과 같고 서가래에 두른 부연은 명랑하고 정밀하여 옛적에 비하여 다시 보게 되니, 주간(主幹)하고 다스린 공이 이제야 나타난 것이다.

금후(今後)에 일을 책임지는 자는 할어지면 일으키고 떨어지면 보수하여 오늘의 중신(重新)함을 보듯이 조금도 손색이 없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제수물자(祭需物資)와 전복(典僕)이 많았으나 하나도 줄거나 아낌이 없고 공사가 크고 비용이 많았으나 창고(倉庫)가 오히려 충분하였으니 이

또한 어려운 일이다.

공사가 끝난 뒤에 안군(安君)과 권생(權生)이 나에게 그 사적(事蹟)을 기록할 것을 청하매 내 생각건대 삼태사는 동시에 한가지 일을 하였으니 일당(一堂)에 아울러 봉향(奉享)하니 덕이 깊으므로 감음이 크고 감음이 크므로 경사(慶事)가 같이 발양(發揚)하고 소저(昭著)하여 오래 질수록 더욱 드러나니 저 하늘에 치솟는 불꽃이 성호(城壕)의 외부에까지 번져 더욱 인접한 명궁(明宮)에는 거두어 피웠으니, 이 당(堂)을 삼한 것은 비록 인력(人力)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한 신(神)의 지모(智謀)가 음(陰)으로 도운 것이 아니겠는가.

부역(賦役)을 하여도 원한이 없고, 계획은 이루어졌으니, 공(功)은 앞에서 힘쓰고, 사적은 후에 전해지는 만큼, 가(可)히 기록이 없을 수 없어 이로써 당(堂)의 기록을 삼아 후인(後人)에게 보이는 바이다.

## 先酌權太師定式

‘文獻備考 肅宗己巳’

안동부(安東府)에 삼태사(三太師)의 묘사(廟祠)가 있으니 권태사(權太師) 행(幸), 김태사(金太師) 선평(宣平), 장태사(張太師) 정필(貞弼)을 봉향(奉享)하였는데, 권공(權公)과 김공(金公)의 위치(位次)로써 양가(兩家) 자손이 상소(上疏)하여 변론(辯論)할제, 김수일(金壽一)이 말하기를 ‘여사(麗史)에 의하면 견원(堅塹)의 난에 고창(古昌) 성주(城主) 김선평(金宣平)이 군인(郡人) 권행(權幸) 장정필(張貞弼)과 더불어 의거(義擧)를 일으켜 적을 쳐다 하였으니 군(郡)의 주민(住主)이 배(配)가 됨(不可)하다’ 하니 권유(權愈)가 말하기를 ‘여사에는 김행(金幸)이 고창 성주라 하였고, 이색(李穡)이 지은 권렴모지(權廉墓誌)에는 김행이 할어지면 일으키고 떨어지면 보수하여 오늘의 중신(重新)함을 보듯이 조금도 손색이 없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아니하겠는가?’

제수물자(祭需物資)와 전복(典僕)이 많았으나 하나도 줄거나 아낌이 없고 공사가 크고 비용이 많았으나 창고(倉庫)가 오히려 충분하였으니 이

수일(壽一)이 또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항(李滉)의 기문(記

文)에 여조(麗朝)의 삼공신(三公臣)을 열록(列錄)함에 있어 김공 선평, 권공 행, 장공 정필이라 하였으니 그 차례가 분명하지 아니한가?’ 하니 유(愈)가 말하기를 ‘작문(作文)의 체제(體制)는 마땅히 결론을 볼 것이니, 처음은 비록 그러나 결론에 있어서는 그 당시의 사태의 기미(機微)가 다 권공의 앞선에서 나온 것이므로 백성들의 잊지 못하는 더욱 권공에 대해서 그런 것이니 권씨(權氏)로써 이를 주관(主管)함이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이 곧 단정적인 문서라 하였다. 김수일이 또 말하기를 ‘삼태사(三太師)를 한줄로 열향(列享)하여 권공이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있음을 상위(上位)로 삼는 예(禮)는 무슨 증거가 있는가?’ 하니 유가 말하기를 ‘의언(儀言)에 서민(庶民)이 삼대(三代)를 제사하면 증조(曾祖)가 중(中)이 되고 조(祖)가 좌(左)요 니(繼父)를 우(右)로 일행(一行)으로 배열하여 남향(南向)한다 하였고, 주자(朱子)가 왕자중(王子重)에게 회답한 글에 만일 삼대를 제사한다면 증조가 중(中)이 되고, 조가 동(東), 고(考父)를 서(西)라 하였고, 의례(禮儀) 대전(大全) 가운데 또한 증조가 중이 되고 조가 동, 고를 서로 한 도표(圖表)가 있어 남향으로 배열하였으니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아닌가’ 하니 곧 예조(禮曹)로 회부(回附)하매, 예조에서 회시(回示)하기를 7,8백년 동안 받아들여는 제사의례(祭祀儀禮)를 일개 김수일의 그릇되고 망명된 말로 인하여 경술히 변경할 것을 의논한다는 것은 진실로 해괴한 일이나 차후로는 제향시(祭享時)에 작원(爵職)하는 절차는 권태사로써 선위(先位)를 삼도록 방식을 정함이 의당(宜當)하다 하였다.

## 常享祝文

삼한(三韓) 벽상(壁上) 삼중(三重) 대광아부공신(大匡亞父功臣) 태사권공(太師權公)이시여, 동(東)녘 땅은 힘입어 평안케 되었고 생민(生民)은 양육(養育)함을 얻었으니 크도다! 공덕(功德)은 산과 같이 높고, 바다와 같이 넓어, 묘사(廟祠)를 세우니 고요하고, 경건(敬虔)하오매 술이 맑지 못하오나, 원(願)하옵건대 위에 다다르사 받으시옵소서.  
春祀二月中丁日 秋祀八月中丁日

## 爵獻復古後告由文(己巳)

세 분의 훈위(勳位)를 상고하옵건대 덕(德)은 다 같이 높으시와 일체(一體)로 제사(祭祀)를 드리오나, 주향(主享)은 중위(中位)로써 할 것을 의식(儀式)으로 정하고 영세(永世)토록 준행(遵行)하여 봉송(奉崇)하옵더니 후손(後孫)에 이르러 일종의 의론(義論)이 있어 제전(祭典)을 어지럽히고 국왕(國王)을 괴롭히기까지 하여 한분은 내리게 하고 한분은 오르게 하여 갑자기 옛 제도(制度)를 변경하고 전헌(奠獻)의 서차(序次)를 바꾸는 것은 예(禮)에 있어 그릇된 것이오나, 후생(後生)이 어찌 선배의 신필(信筆)을 징험(徵驗)하오리까?

인정(人情)은 더욱 움직이고 공론(公論)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합부로 진달(陳達)한 소청(疏請)을 다스리지 않을 수 없어 이에 조정(朝廷)의 공론을 가리게 되온바, 국왕께서 운명(允命)하사 당초(當初)의 의식으로 복고(復古)할 것을 선포(宣布)하였어유기기에 향화(香火)를 올리옵고 사되어 삼가 고(告)하나이다.

## 安東府司古蹟

상야울(象牙笏) 1개(個), 백옥대(白玉帶) 1개, 동철저지금대(銅鐵荔枝金帶) 1개, 목단금대(牧丹金帶) 1개, 오서대(烏犀帶) 1개는 공민왕(恭愍王)이 안동부사(安東府司)에 행재(行在)하여 머무를 때에 하사(下賜)한 것이다.(文獻備考) 옥적(玉笏) 1개 길이는 일척구촌(一尺九寸), 그 소리는 맑고 밝으니, 신라시대(新羅時代)의 악기로써 권태사(權太師)의 구물(舊物)이다.(輿地勝覽)

려지금대(荔枝金帶) 1개는 권태사의 유물(遺物)인바 상호장(上戶長)이 행대(行禮)할 때에 지금도 이를 띠다.(永嘉誌)

주홍칠목식탁대(朱紅漆木食卓臺) 1대도 또한 권태사의 남기신바다.(府司蹟記)

이 이외에도 옥관자(玉貫子) 2쌍(雙), 은기(銀器)가 뚜껑을 갖추어서 1좌(座), 은시저(銀匙箸) 1벌, 주단(緞段) 각색(各色) 합하여 15폭(幅·長短이 같지 않음), 향낭(香囊) 7부(部) 여화(女靴) 한 벌, 선자(扇子) 한 개, 공민왕 친필로 된 교지(敎旨) 1폭(幅)이 있다. (다음호에 계속)

# 丁茶山の牧民心書 이야기(3)

## 제가(齊家)

1. ‘修身而後齊家齊家而後治國天下之通義也. 欲治其國者先齊其家. 자신을 수양한 후에 자기 가정을 가지런히 하고, 자기 가정을 정제(整齊)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천하 어디에서나 통하는 도(道)이다. (그러므로)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가정을 정제해야 한다.’

부모·처자·형제를 육친(六親)이라고 한다. 위로는 사관(嗣版·神主)을 받들고 아래로는 식솔과 하인을 거느리고 집 전체가 이사를 한다면, 모든 일이 얽히고 꼬여, 사사로운 일 때문에 공무(公務)가 흐려지고 처리(治理)가 문란해질 것이다. 그래서 예부터 현명한 수령은 집안 일로 해서 누(累)가 따르지 않게 하였거니와, 이는 참으로 잘한 일이다. 다만, 부모가 이미 연노(年老)하시어 그 공양이 몹시 긴요한 경우애는 그 외의 일은 모두 간략해야 할 것이다.

2. ‘國法母之就養 則有公賜 父之就養 不會其費 意有在也. 국법(國法)은, 어머니를 곁에 모시고 공양하면 공물(公物)을 내려주고, 아버지를 곁에 모시고 공양함에는 그 비용을 계산에 넣어 주지 않거니와, 거기에는 다 깨닫이 있는 것이다.’

수령이 아버지를 공양하며, 친구들은 <춘부(春府)>라 부르고 이노(使奴)들은 <대갑>이라 부른다. 대갑이 나이 60이 넘어 쇠로 하여 보살펴 드릴 사람이 필요하면 마땅히 곁에 모시고 잘 받들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성이 지극하여 아버지 모시기를 간청해도 아버지는 사람은 가뵈이 따라서는 안 된다.

부득이 곁에 모셔야 할 처지라면, 내사(來舍)에 따뜻한 방 하나를 깔아서 조용히 지내게 하거나 간병(看護)해 드리도록 하고,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은 막는 것이 예의이다. 대체로 보면, 춘부(春府)들은 예(예)를 잘 몰라, 외사(外舍)에 나가 앉아 아전들을 꾸짖고 종들을 호령하며 기생들을 희롱하고 손님들을 끌어들이며, 심하면 송사(訟事)나 옥사(獄事)를 구실삼아 돈을 받는 등 관정(官政)을 혼탁하고 어지럽게 하므로, 저주하

는 백성이 성안에 가득하고 비방자들이 경내(境內)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자식의 효성은 함께 상하게 되며, 공(公)과 사(私)가 함께 병들게 되니, 반드시 리는 것이 천하 어디에서나 통하는 도(道)이다. (그러므로) 고을을 다스리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가정을 정제해야 한다.’

3. ‘慈母有教 妻子守戒 斯之謂法家 而民法之矣.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고, 아내와 자식들이 계율을 지키면, 이를 법도 있는 집안이라 할 수 있니, 백성들이 본받을 것이다.’

윤석부(尹碩輔)가 풍기군수(豊基郡守)로 있을 때에 아내와 자식들을 풍덕(豊德)의 시골집에 두니, 추위와 굶주림으로 그 고통이 이를 데 없었다. 견디다 못해 그의 아내 박씨는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비단옷을 팔아서 밥 한 모를 샀다.

윤공(尹公)이 이 소식을 듣고는 급히 편지를 보내서 그 밭을 되돌려 주라고 명령했다. ‘옛사람은 한치의 땅도 넓히지 않음으로써 임금께 충성을 했다 하였는데, 지금 나는 대부(大夫)의 뒤를 따라 녹을 받는데, 전택(田宅)을 사들인대서야 말이 되겠소. 백성들을 상대로 매매하여 나의 죄를 무겁게 하지 마시오.’ 남편의 이 같은 편지를 받고서 박씨는 그 밭을 되돌려 주지 않을 수 없었다.

## 낙시(樂施)

1. ‘節而不散 親戚畔之 樂施者 樹德之本也 절약만 하고 두루 베풀지 아니하면 친척들이 멀리하니, 베풀기를 즐기는 것이 덕을 심는 근본인 것이다.’

못에 물이 피고 또 피면 장차 흘러 넘쳐 만물을 적셔 준다. 그러므로, 절약할 수 있는 자는 능히 베풀 수 있지만, 절약하지 못하는 자는 베풀 수가 없는 것이다. 창기(媿妓)를 불러들여 얹혀 가끔이나 타고 피리나 불며, 비단옷을 입고 값비싼 말에 사치스런 안장을 엮고, 상관에게 아첨하고 권세 있는 귀족들에게 뇌물을 바쳐, 그 비용이 하루에 수만 냥이요, 1년에 탕진하는 돈이 천억이나 되니, 어찌 유가가 있어 친척들에게 베풀 수가 있겠는가. 절약해서 쓰는 것이야말로 낙시(樂

施)의 근본인 것이다. 내가 귀양살이하면서 늘 수령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를 가련히 여기고 나의 빈한한 살림을 도우려 한 자는 그 의복이 아주 검소하였다. 그러나 화려한 의복에 기쁨이 흐르는 얼굴을 한 자는 즐겨 놓고 음탕한 생활을 일삼을 뿐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2. ‘貧文窮族 量力以周之. 가난한 친구와 빈궁한 친척들을 힘 자라는 대로 원조해 주도록 하라.’

한 집에서 자내던 사람들 중 함께 데리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가난하여 끼니를 잊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계산하여 한 달에 얼마씩 보내 주어야 한다. 또 소공(小功)5개월간喪服을 입어 줄 친족. 從兄(從兄), 從孫(從孫) 안에 드는 친척들 중 가난하여 굶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달 보름치의 생계비를 보내 줄 것이며, 그 외의 친척들에게는 사정이 급한 경우에만 보조해 주도록 하라. 가난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친척에게는 가끔 베푸는 것으로 족하다.

또 가난한 친구가 찾아와 도움을 청하면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야 하며, 갈 때에는 노자(路資)를 계산해 주되, 집에 돌아갔을 때에 다시 남음이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다.

팔송(八松) 율황(尹煌)이 부임해 가는 고을마다 친척들을 만나면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는 친척들이 구원을 청하면 자신의 의식(衣食)을 줄여서라도 반드시 도와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가문이 쇠잔하여 녹을 먹는 자는 나 하나뿐인데, 내가 자네를 도와주지 않으면 청렴하고 검약한 수령이라는 말은 들을지 몰라도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심정을 헤아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네. 또 벼슬살이의 도(道)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나 자신의 몸을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먼 부끄러운 일은 되지 않는 것일세.’

관고(官庫)에 남은 재정이 있어 그것을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은 지극한 덕인 것이다. 그러나 고을의 재물을 사사로이 남용하는 것은 예(禮)가 아니다. (다음호에 계속)

## 특별연재

# 古訓新鑑

## ■ 입암서원유사 권태수

<지난호에 이어>

[例話]

-惡而知美(오이지미)

춘추시대 진(晉)나라에 도공(悼公)이란 명군(名君)이 있었는데, 당시 중군위(中軍尉) 기해(祁愷)란 신하가 70여세의 나이로 사직(辭職)을 청하자 도공이그의 후임자를 물었다.

“경이 지금까지 말해보던 자리를 누구에게 맡길꼬?”

“해호(解狐)가 가장 적임자입니다”

“해호는 그대의 원수(怨讐)가 아닌가? 어찌서 경은 자기 원수들과인에게 천거(薦擧)하는가?”

“상감은 신에게 적임자를 물었을 뿐이지 신의 원수를 묻지 않았습디다.”

이러하여 진나라 도공은 해호에게 중군위를 제수(授授)하였는데 그는 취임하기도 전에 병으로 죽어버려 도공은 다시 기해에게 다른 적임자를 천거하게 했다.

이에 기해는 자기 아들인 기오(祁午)를 추천했다. 도공으로서의 또한 의의(意)외였다.

“기오는 바로 그대의 아들이 아닌가?”

“상감께서는 신에게 적임자를 물었을 뿐이지 신의자식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디다.”

사람을 추천함에 있어서 자기 원수를 추천하고 또 가장 오해를 하기 쉬운 자기 아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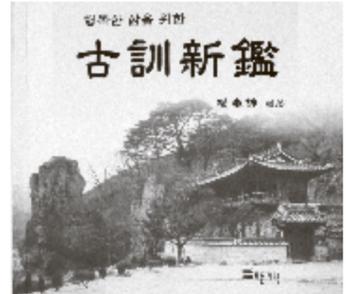
추천할 수 있는 기해(祁愷)야말로 사적(私的)인 감정과 공적(公的)인 문제를 구별하고 인물을 공정히 평가할 수있었던 사람이라 할 수 있다.

司馬溫公口 積善以遺子孫이리도 未必子孫能守其 積善以遺子孫 이리도 未必子孫이 能盡其이니 不如積德於冥冥之中이며 以爲子孫之幸니라.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돈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책을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줄지라도 반드시 자손이 능히 다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남모르는 덕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쌓아 자손을 위한 계획으로 삼느니라 감지 못하다.

## [解讀]

원래 부귀와 공명은 뜬 구름처럼 변화가 무상하여 믿을 것이 못된다.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고 살게하기 위한 계획으로는 오직 선행을 널리 베풀어놓은 덕을 쌓아 두는 것이 제일이다.



실사 많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줄지라도 자손 중에 방탕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재산을 지켜나가지 못하고 파산해버리고 만다. 또 아무리 성현의 말씀이 담긴 좋은 책을 자손에게 많이 물려줄지라도 자손이 현명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잘살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일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행을 많이 하는 음덕(陰德)을 널리 쌓아두는 것이 제일이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두고 두고 그 은혜를 갚게 마련이다. 또 이와 같이 선행(善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마련이다.

이것이 곧 자연의 법칙이며 이것을 하늘이 복으로써 갚아준다고 이르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작은 선행을 하여도 그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보답이 적게 마련이다. 선행은 되도록 남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행을 베풀면 누구나 기쁨과 만족감을 느낀다. 이것만으로도 일단 충분한 보답은 받은 셈이 된다.

(다음호에 계속)